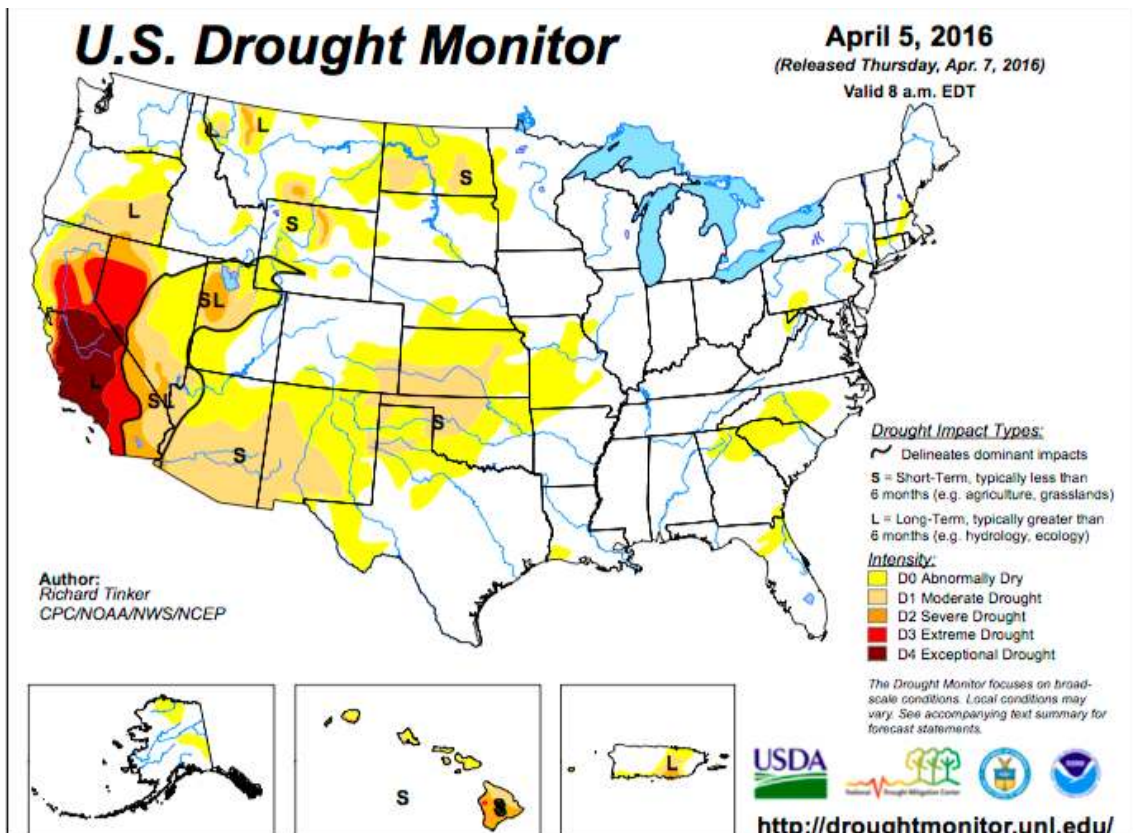


4월 12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15)

□ 미국 기후 현황(4/3~4/9)

서부는 북서부 지역에 주 초반 비가 흩뿌린 것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고기압의 영향 아래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다. 주 후반에는 비가 내렸고, 캘리포니아 중부 일부 지역도 1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미국 중부 일대도 대체적으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다. 북부 평원에는 주 초반 비와 눈이 내리기도 했고, 텍사스에도 주 후반으로 가면서 비가 내렸다. 대평원에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이 몇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오클라호마 북부에도 “350 Complex”가 57,440 에이커의 초지와 산림을 전소시켰다. 남부 지역은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으나, 중서부와 북동부는 비와 눈이 내렸고, 이 비는 4월 6일과 7일에는 남동부로 이동해 또다시 비를 뿌렸다. 오대호 일대와 북동부 일부 주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눈이 내리기도 했다. 중서부, 북동부, 대서양 연안 중부지역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10°F 이상 기온이 낮았다. 이와 반대로, 대평원과 태평양 연안 지역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았으며, 캘리포니아 북부와 대평원 북부의 지난 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에 비해 10°F 이상 기온이 높았다.



□ 농업 현황 요약(4/4~4/10)

서부의 많은 지역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았고, 이와 달리 오대호 인근과 북동부 일대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9°F 이상 낮아 봄철 파종작업이 다소 지연되었다. 북서부와 남동부는 맑은 날씨가 이어져 농작업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남서부 일대는 캘리포니아 일부와 네바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비가 내렸다.

□ 세계 기후 현황(4/3~4/9)

■ 유럽: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겨울작물 재배지역에서 수확량 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와 영국 일대는 평년에 비해서 기온이 1~3°C 정도 높은 가운데 5~3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독일과 폴란드, 발틱 연안 국가들도 1~2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발칸반도 일대는 평년보다 기온이 최대 9°C 이상 높은 이상고온 현상으로 겨울작물 생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스페인은 10~4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이탈리아 북부는 옥수수 파종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구소련(서부): 대부분 지역에서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농작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카스피해를 중심으로 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 일대에서는 지난 한 주간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서부 등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5~10°C 정도 높았다. 러시아 남부와 중부도 평년에 비해 기온이 1~4°C 정도 높았는데, 이 때문에 농지를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던 눈이 다 녹아내리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와 인근의 러시아 일부 지역은 낮 기온이 22~26°C까지 올라가는 가운데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며, 옥수수와 해바라기 등의 파종작업도 진행 중이다.

■ 동아시아: 중국 동부 일대는 넓은 지역에 걸쳐 봄비가 내렸다. 중국 북부 평원의 남부 일대에 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보다 남부 지역에는 지역에 따라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도 했다. 반면, 북부 평원의 북부와 중부 일대의 밀 재배지역에서는 이례적인 고온 현상으로 가뭄이 이어지고 있어 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2월 이후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있다.

■ 호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확작업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주 후반 2~10mm 내외의 비가 내려 면화 수확 작업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수확 작업 상황은 좋은 편이다. 동부 일대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2~3°C 정도 높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20°C 중반에서 30°C 초반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 아르헨티나: 북동부 일대는 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체적으로 수분 공급 상황은 좋은 편이다. Entre Rio 북부와 Corrientes 남부 등에서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고, 이번 비는 주 후반으로 가면서 서부와 남부의 Santa Fe, Entre Rio로 확대되었다. 이번 비로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최근 파종작업이



끝난 옥수수과 대두에 충분한 양의 수분을 공급해 주었다. La Pampa, Buenos Aires 등 남부지역에서도 일시적으로 기승을 부리던 가뭄이 끝이 나고 비가 내렸다. 중부의 La Pampa, Buenos Aires, Cordoba 남부, Santa Fe, Entre Rio 등에서는 지난 한 주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평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낮 최고기온은 20°C 중반까지 오르내렸다. 아르헨티나 북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중반까지 오르기도 하는 등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졌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4월 7일 기준 해바라기의 수확률은 94%이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수확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 브라질: 중부 일대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은 평년에 비해 다소 높았다. Mato Grosso 동부와 남부, Goias, Parana 등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10mm 내외의 비가 Mato Grosso do Sul 일대에 제한적으로 내렸다. 이들 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낮 기온이 30°C 중반까지 오른 곳도 있었다. 중부-서부 일대의 Mato Grosso, Goias 등에서는 우기가 끝이 나고 건기가 시작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동부 내륙지방에서도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달리, 브라질 제 2의 옥수수 산지인 Rio Grande do Sul 등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